

□ 군생활체험기 1.

희망이란 이름으로 보낸 군생활

정말 출제만 느껴지는 겨울이었다. 짧게 깎은 머리카락이나 황량한 논산 별관과 그 별관위를 지나 얼굴을 때리는 바람 줄기는 감추고만 싶었던 불안감을 함께 입소하는 동기들의 눈빛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었다. 남의 이야기인양 여겨오던 낯선 구호들과 부모님들의 걱정스런 눈초리, 겨울 풍경만큼이나 삭막한 위병의 표정.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훈련소의 첫 인상이다.

입소식을 마칠 무렵, 그럴듯하게 애국가가 울리던 훈련병들의 마음 속에 마치 당장이라도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으로 나갈 것만 같은 비장감으로 가득 차오르고 마음 약한 몇몇 어머니들의 눈가엔 이슬이 맺히고... 그런 아련한 모습도 잠시뿐, 보무도 당당하게 막사를 향해 걸어가다 함께 온 부모 친지들이 안보일 때쯤 되던 그 순간에 훈장처럼 가슴에 걸리는 것이었다. 그 순간에 훈장처럼 가슴에 걸리는 것이었다. 그 순간에 훈장처럼 가슴에 걸리는 것이었다.

복일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 어색한 상황에 대해 서로 묻고 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순식간에 배급되는 험악한 군복을 조교의 독촉하는 소리와 함께 갈아입고 나면 비로소 이젠 이 사회의 규율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이젠 모든게 끝이구나... 라는 생각은 나 뿐만이 아니었다. 우습게도 조금 여유가 생길 무렵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훈련소에 오면 서 자신이 두고 온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값진 것이었으며 어느 누구도 자신보다 안타까운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깊은 한숨만이 서로의 가슴 속에 남겨지는 순간들이다. 겨우 시작을 하려는 마당에 다가오는 그런 절망감이 사람을 얼마나 무력하게 하는지를 군에 다녀온 분들이라면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느껴오던 절망과 함께 신기하게도 가슴 속 한 구석에서는 판도라의 상자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늦게 세상에 나온 희망이라는 감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인내를 조금씩 키워내 주는 것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알몸 구보가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에서부터 오늘은 설거지가 되어있는 식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시작

되는 오전 일과가 곧 점심 시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식의 가늠된 기대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의 가장 단순한 정신 작용인 동시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남아있는 것은 내가 가졌던 희망의 모습과 그 따뜻한 느낌들이다. 겨울의 칼바람과 낯선 군 조직의 규율 속에서도 다시금 내가 위촉되지 않고 견디어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입대 전 즐겨 들었던 어느 노래의 '내일이 오면'이란 제목같은 작은 희망들이었다.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재미있는 추억 정도로 여길 수도 있을 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남아있는 것은 내가 가졌던 희망의 모습과 그 따뜻한 느낌들이다. 겨울의 칼바람과 낯선 군 조직의 규율 속에서도 다시금 내가 위촉되지 않고 견디어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입대 전 즐겨 들었던 어느 노래의 '내일이 오면'이란 제목같은 작은 희망들이었다.

배 중 근 (중문과 3학년)



“예비군복을 입으면 묘한 향수에 젖기도...”

□ 군생활체험기 2.

통제의 굴레가 준 자유에 대한 교훈

2년 반동안 난 아주 자유롭게 대학생활을 했다. 학점이나 취업이나 그 무엇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를 만끽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살다 어느날 군대라는 새로운 환경을 접했다. 군대에 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던 난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연일 계속되는 훈련은 고사하더라도, 물 한모금에 매번 전쟁을 치뤄 내야 하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허락을 얻어야만 했던 훈련소 생활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였다. 그렇게 나의 군생활은 시작되었고 자유롭던 그 옛날이 그리워 그 추억에 파묻혀 헤어지지 못했다.

이등병 생활은 누구나 상상하는 바로 그런 생활이었다. 상급

자의 명령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며 부대의 잡다한 일들은 모두 우리의 몫이었다. 상급자와의 대화에서는 구어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고, '다', '까'로 끝나는 문어체만을 사용해야 했다. 지점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나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 나가야 하는 긴 수도의 길이었다.

시간이 흘러 그런 생활이 조금씩 몸에 익숙해 지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나를 감싸고 있던 '통제'라는 낯도 느슨해 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군대가 무엇인가, 어떤 곳인가, 이 곳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먼저 선임자들과의 관계부터 생각했다. 군대에서 선임병과 후임병의 관계는 사회에서 또는 대학에서의 선, 후배 관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들을 대할때 교수님이나 아버지

를 대하듯 말과 행동에서 아주 깎듯 하었다. 군 조직에서 선임자는 후임자에게 존중받기를 매우 좋아한다는 특성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군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위급상황에서는 국가를 지킨다는 군의 존재 이유를 떠올리며 '상급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과 개인의 절제된 자유(우리는 흔히 통제의 굴레에 씌워져 있다고 표현한다) 없이는 군 조직은 제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도 느꼈다.

힘든 훈련이나 군무를 나갈 때 '아차피 겪어야 할 고통이라면 차라리 즐겨라'라는 한 선임병의 말을 되뇌이며 그렇게 인내를 배워 나갔다.

군 생활을 통해 입대전 난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앞 뒤 생각없이 아무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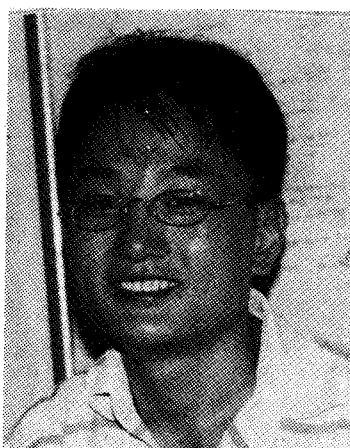
리낌 없이 난 방종을 일삼았던 것이다. 또한 내가 얼마나 게을렀으며, 얼마나 나약했는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난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절감하며 전역을 했다.

우리는 26개월을 사회와 단절되어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한다. 짧지만은 않은 세월에 비하면 그 곳에서 배우는 것은 너무 적다고들 한다. 하지만 너무 좁게 생각지는 말자. 우리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 현실속에 내가 존재하며 내가 희생해야 우리가 지켜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개인적으로는 한가지도 득이 없었지만 보았다는 치더라도 내가 이 사회가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한 번쯤은 그리고 조금은 거창하게 평가한다면 그 세월이 그다지 아깝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서 정 일 (철학과 2학년)

□ 서명수 사학과 예비역협의회 회장 인터뷰

뜻뜻한 정을 위해 모였어요-



재대 후의 어려움이 있다면... 보통 군대에서 몇년을 보내고 다시 복학을 하게 되면 학교가 무척 낯설게 느껴지곤 하잖아요. 음, 새내기들이 처음 대학에 들어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 때문에 느끼게 되는 낯설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소외감이랄까요? 자신은 그대론데 대학은 엄청나게 변해버렸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때문에 재대하고 나서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취업등의 문제도 있고 해서 복학을 하고 나선 주로 도서관에서 생활을 해요.

그럼 예비역협의회에선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주로 친목도모를 하죠. 서로 알고 지내면 좋잖아요. 선후배간, 동기간의 끈끈한 정을 이어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들도 있고, 밀린 공부도 보충하느라 다들 바쁘기 때문에 정기적인 이벤트같은 걸 준비하기는 힘들고요. 틈나는대로 술자리를 같이 한다거나, 체육대회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생활로 갈고닦은 체력때문에 다들 웬만한 운동은 하거든요. 생일도 꼬박꼬박 챙기려고 하구요. 다들 남자들이라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조금 무뎠던하거든요.

군대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저는 일반 육군과 달리 경쟁생활을 했었어요. 임의로 차출해서 뽑는건데 한마디로 줄을 잘못 서서 정경이 된거죠. 저희 부대의 경우에도 90%이상이 대학생이었는데 막상 시위진압현장에 나가 보면 대부분 비슷한 또래잖아요. 위에서 시키니까 진압을 안할 수도 없고 부딪히다보면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지만 정말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또, 한번은 충북도청 앞에서 시가행진에 반대하는 농민시위가 있었는데,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었어요. 어느분이 '너희들은 험버거만 먹느나, 애비메미도 없냐'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정말 온몸이 힘이 다 빠지더군요.

끝으로 군대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긍정적 면으로는 외부로부터의 보호를 떠나 철저히 밀바다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죠. 그 기간동안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이나 책임감들이 생기니까요. 또, 재대 후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하게되죠. 다소 피상적이기는 하지만, 군대가 그리만 족스럽기만 한 곳은 아니니까요. 부정적인 면으로 폭력에 무너지는 점을 들어야겠네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나 고참들의 후배 구타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제 동기중에는 췌장염의 소르로 지금까지도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고참이 되면 정말 민주적인 군대를 만들어봐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고참이 된 후엔 자신도 모르게 예전에 싫어했던 고참들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더군요.

□ ROTC 체험기

삶을 변화시킨 ROTC

ROTC의 사전적 의미는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즉, 예비역 장교 훈련단이다.

학과수업과 병행해야 하는 학업수업, 선배들의 계속되는 집합교육 등이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으나, 한 학기, 두 학기 시간이 흐를수록 어느새 국제신사로서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다듬어 가고 있었

어느덧 2년이 지나고 1988년 봄 졸업과 동시에 4천여명의 동기들과 함께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달 수 있었다. 소위 임관과 동시에 광주의 보병학교(상무대)에서 12주간의 교육을 무사히 수료하고, 배치된 곳은 육군 백룡부

대였다. 어깨에 푸른전장을 차고 40여명의 부하들과 동고동락하며 1년을 지내고 대대참모로서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다보니 벌써 전역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문 무를 겸비한 ROTC장교로서 육사출신, 삼사출신 등 다른 장교들에 뒤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군생활에 전념하다보니 사단장 표창도 2회나 수상할 수 있었다.

전역을 앞두고, 나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다. 평범한 성격이 활발한 성격으로, 우유부단한 성격이 과감한 성격으로, 피동적인 생활습관이 능동적인 생활습관으로 변해 있었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40여명의 부하들을 아무 사고없

이 고된 훈련과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통솔력, 자신감 등이 내 몸에 배어 있었다.

내 주변의 대학 2학년 남학생들에게 나는 ROTC에 지원하라고 강력하게 권유한다. 이왕 군대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명령에 의해 생활하는 것보다는 명령을 하며 생활하는 것이 백번 낫지 않은가?

어깨의 푸른 전장은 '책임'을 의미한다. 40여명의 부하들을 '책임' 지는 것은 피를 말리는 것이지만, 그로인해 내 자신이 얻는 경험은 억만금을 주어도 사지 못하는 것이다. 억만금을 손에 쥐고 싶지 않은가?

신 동 성 (ROTC26기)

삼보컴퓨터
http://www.trigem.com

앗!
“레이-밴 선글라스닷!”

시원한 찬스

삼보 컬러프린터 600H(1440DPI)를 할인가격에- 레이-밴 선글라스까지 보너스로 드립니다

기간 97. 8. 27~9. 13

사은품 레이-밴(Ray-Ban) 선글라스
킬러-루프(Killer-Loop) 선글라스 중 하나

해상도 1440DPI로 컬러 커뮤니케이션 한다.

삼보프린터 1440
TriGem & EPSON Stylus COLOR 600H

- 인쇄방식: 마하방식
- 해상도: 1440DPI x 720DPI
- 인쇄속도: 흑색6PPM, 컬러4PPM
- 용지지원: A4, B5, 엽서, Letter, OHP film, T-shirt 전사용지
- 가격: 399,000원 → 400,000원(VAT 포함)
단, 가격할인은 9.10까지

컴퓨터는 젊은사람들이 잘 만듭니다. 삼보